

시간당 80mm 비 건디는 인프라 100mm 쏟아지면 ‘속水무책’

광주 도심 빗물 하수량 10년 빈도 폭우 대비...100년 빈도 호우 쏟아져
극한호우 대비 하수관로 교체 예산 수천억원 필요...중앙정부 지원 절실

광주 도시의 빗물 하수량은 10년 빈도 강수량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집중호우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 용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도심 노후 하수관로에 교체에 들어 가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하수관로는 총 456만9560m(합류식 172만457m·분류식 284만 9103m)에 달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광주시는 강수 방재성능 목표를 강우 지속시간에 따라 1시간 88mm, 2시간 124mm, 3시간 150mm로 잡았다. 강수 방재성능은 비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운영 기준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년에 발생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간선관로는 직경 800mm 이상, 지선관로는 직경 800mm 이하를 적용했다.

800mm 이상 관경의 하수관로는 시간당 83.9mm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광주도심 골목에는 시간당 74.2mm의 강우량을 버틸 수 있는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지선이 모이는 간선하수관로는 시간당 80mm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하수관로중 간선관로의 40%가량은 800mm 이상 관로를 설치했고, 지선 관로는 60% 이상은 시간당 70mm를 견딜 수 있는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데 있다.

당장 17일 광주에는 시간당 80mm의 비가 쏟아졌고, 사흘간 광주에는 527.2mm의 비가 집중됐다.

광주지역 평년강수량(1991~2020년 평균 강수량·1380.6mm)에 견줘보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38.1%가 사흘만에 쏟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간당 100mm의 비는 강한 태풍 때문

에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극한 강수가 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타 지자체는 방재 목표를 ‘시간당 100mm’로 새로 설정하고 치수 체계를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는 아직도 시간당 80mm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 노후하수관로는 143km에 달한다.

광주시는 2029년까지 총 259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정비하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현재 36km구간만 정비가 완료됐고 18km구간 공사를 진행중이다.

52km는 설계를 진행하고, 37km는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습침수지역 극락천, 서방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계림동 일원에 대해 침수 예방사업도 환경부 협의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북구 중흥동, 신안동, 문흥동 등의 상습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천 배수구역에 하수관로 6.7km를 개량하고 펌프장 1곳을 설치하는 서방천 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정비대책 검토 장기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남구 서석고 인근과 백운광장 침수 해결을 위한 극락천 배수구역(하수관로 1.5km 개량, 펌프장 1곳 설치) 정비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했지만, 환경부의 광주전 방류 불가에 따른 정비대책 변경조치에 막혀있다.

북구 운암동 공구의거리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실시계획 용역 추진 중이고, 동구 계림동 일대 하수관로 개선과 저류지 설치 사업이 담긴 경양지천 하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대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들은 계획대로 예산되더라도 2027년 연말부터 2028년 연말 각각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극한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18일 광주시 북구 공구의거리에서 상인이 침수로 젖은 공구와 자재를 꺼내 말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마→폭염→폭우→폭염...동남아 닮아가는 날씨

온난화에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
극단적인 기상현상 이어져

장마가 일찍 끝나고, 예상치 못한 폭우가 극적으로 쏟아지고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지구온난화 등 여파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면서 ‘동남아 우기’와 유사한 기상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동안 광주에는 527.2mm의 비가 내렸다.

지난 17일에는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 백운산 602.5mm, 담양 봉산 540.5mm, 광주 527.2mm, 구례 성삼재 516mm, 나주 508.5mm, 화순 백아면 494.5mm 등이 내렸다.

특히 기상청 예보가 줄줄이 빗나갈 정도로 ‘예측 불허’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16일까지만 해도 예상강수량을 20~80mm로 예상했고 사흘간 총 최대 280mm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7일 오전 10시 폭우가 내리기 30분 전 뒤늦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고 10분만에 경보로

상향했다.

18일에도 낮부터 폭우가 예보됐으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오후 6시께에야 뒤늦게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19일에는 기상청은 저녁에 그치겠다고 전망했지만 새벽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3.0mm 나뉘 내리다 오후 5시부터 밤 9시 저녁 시간대에 47mm의 비가 집중됐고, 밤 10시가 돼서야 호우특보가 해제됐다.

최근 ‘극한 강수’가 발생하는 빈도도 짊어지는 추세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역대 1시간 최다강수량 10위 기록 중 1위(1998년 화순 주암면 145mm)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

이 중 3위(2024년 진도 112.2mm), 4위(2017년 고흥 106.6mm), 5위(2011년 광양 106.5mm), 6위(2024년 강진 96.5mm) 등 4개 기록이 2010년대 이후 발생한 ‘극한 강수’였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극한 폭염’이 발생한 여파로 극한 호우도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극한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대기 중 수증기 양도 늘어나고, 호우가 발생할 때 수증기가 대량으로 더해지면서 극한 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열대지방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는 강우 현상 ‘스플’ 과도 유사한 원리다.

결국 이번 극한 호우는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장마가 종료돼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6일) 이래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을 지냈고, 이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폭염이 일찍 찾아왔다.

여름철 기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아열대성 기후, 극단적인 기상 현상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광주·전남 6월 기온은 올해 22.9도, 평균 최고 기온은 27.7도로 가장 높았다. 2023년 22.4도, 2024년 22.7도, 2025년 22.9도 등으로 올랐다.

폭염 일수도 지난해 33.1일로 평년 7.4일을 넘어섰고 폭염이 나타난 범위가 5월 9일까지 늘었다. 열대야일수도 37.8일로 가장 높았으며 평년 11.4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 온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한다”며 “기존의 수증기 양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많아지고, 가뭄할 때는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채워지기 때문에 극한의 많은 양이 내리게 되는 등 극한 기후가 나타날 확률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위성락 안보실장 또 방미...관세협상 ‘소통’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 워싱턴DC로 급거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 실장의 방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으나, 다른 여러 관계자는 “위 실장이 출국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위 실장은 지난 6~9일 방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바 있다. 11일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른 셈이다.

이번 방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실장이 직접 미국 고위급을 재차 접촉해

양국 간 관세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달 말 방미를 추진하는 등 새로 임명된 외교·통상 장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위 실장으로서의 이처럼 ‘올코트 프레스’ 협상이 본격화 하기에 앞서 먼저 미국을 찾아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